

●제22회 전국도서관대회 기조연설

도서관협동체제

최 성 진

성대도서관학과교수

I. 서 언

이 대회에서 내가 할 일은 대회 서두에 총론적으로 대회의 주제를 정의하고 설명한 다음 현재 이 주제 분야에 제기되어 있는 주요 문제들을 개괄적으로 제시하여 이 문제들에 대한 참석자들의 주의와 관심을 모으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따라서 나는 특정문제영역을 심층 분석하여 그 해결을 제시하거나 대책을 건의할 의도는 없다. 그런 일은 네 분의 주제발표자들이 할 것이다.

1. 정 의

도서관 협동체제의 개념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 도서관시스템의 개념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시스템은 따로 도서관협동체제와 동일한구성요소를 가질 수가 있지만 양자는 서로 다른 것이다. 도서관협동체제는 당초 서로 아무런 관계없이 설립되어 운영되던 도서관들이 어느 한 기능 또는 몇가지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공통적 이해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모여서 이룬 협력관계를 말하나 도서관시스템은 처음부터 구조적으로 연결된 두개 이상의 도서관들이며 이때 각 도서관의 목적은 그 기본 이용집단의 요구에 맞추어서 정되어 서로 같지 않지만 그러한 목적들이 모여서 전체 시스템의 목적을 이룬다는 점에 있어서 협동체제와는 구별된다. 도서관시스템은 동일한 행정 통제하의 도서관들 예컨대 어느 공동도서관시스템의 중앙도서관과 산하 분야들로 이루어지는 조직과 같은 것이다. 협동체제에는 그러한 단일 통제기능의 요소가 없다. 도서관 협동체제는 제한된 자체의 자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또는 제한된 자체의 내부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래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도서관들이 부분적으로 기능상의 독자성을 포기하고 상호 의존관계를 맺는 것이다. 전국 각 지역의 도서관들이 해당 지역의 중앙도서관을 중심으로 모여서 연결된 영국의 지역도서관협동체제 또는 그러한 지역 협동체제들이 다시 영국국립도서관을 통하여 국내 주요 전문 도서관들과

연결된 전국 수준과 범위의 협동체제가 그 좋은 보기이다.

협동체제란 상호 협력을 위한 수단이며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므로 협동체제를 완벽하게 정의하려면 협력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협력이란 말은 오래 전부터 도서관분야에서 사용되어 오는 말이지만 아직 그 개념이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다. 협력이란 어떤 공동목표 아래 여러 사람이나 기관이 모여서 모두에게 구체적 이익이 돌아 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힘을 합하여 행하는 일이다. 즉 협력한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 또는 기관들이 모여서 조직되고, 조화를 이루어 행동하고, 각자의 힘을 내놓아 합하여, 공동목표를 세워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힘쓰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결과를 같이 나눈다는 개념이다. 어느 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얻어진 분명한 이익이 예상되지 않는다면 협력을 위한 어떤 시도도 무의미한 것이다. 그것은 다만 번거로운 일을 하나 더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어떤 이익이 있을 수 있는가? 도서관 협동체제를 발의하는 사람들은 흔히 경비절감의 효과를 첫번째 이유로 든다. 경비절감의 효과는 확실히 협동체제 존재의 중요한 이유이고 특히 참가 결정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예산당국에 대하여 설득력 있는 이유가 되지만 그것이 협동체제 구성의 유일한 이유는 물론 아니다. 더 중요한 가치는 협력을 통하여 얻어지는 힘이 협력에 기여된 각 도서관의 힘의 합보다 훨씬 클 수 있다는 잠재적 효과의 관점에서

이해 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사서들이 모여서 각 도서관에 제기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얻어진 개별적 경험들을 상호 교환함으로써 모든 도서관 봉사의 질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 효과도 중요하다.

협력이라는 말과 개념상 때때로 혼용되는 말 가운데 조정이라는 말이 있다. 조정은 협력과 관계된 행동이기는 하나 그것과는 다르다. 즉 협력은 상호 이익이 되는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같이 일해 보자는 단순한 의도로 시작되지만 조정은 그러한 의도 이상을 요구하는 행동이다. 단순한 협력만으로 요행히 기대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러한 요행을 바랄 수는 없다. 기대하는 효과를 확실히 하려면 협력에는 어떤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그것이 조정 활동이다. 손수레를 하나씩 끌고 비탈길을 올라가던 네 사람이 우연히 만나 협력하는 경우를 생각해 본다. 네 사람은 우선 가장 무거운 수레부터 차례로 하나씩 마루터기까지 끌고 올라 갈 것에 합의하고 한 사람은 앞에서 나머지 세 사람은 각각 수레뒤와 바퀴에 붙어서 앞 사람의 구렁에 맞추어 힘을 주면서 알맞은 속도로 수레를 밀

고 올라 갈 것이다. 이것이 조정이다. 조정은 요컨대 계획하고, 조직하고, 적재를 적소에 배치하고, 일할 의욕이 나게하고, 통제하는 이른바 의도적 관리기능을 통하여 협력사업의 목적 성취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서관협동체제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러한 조정을 통하여 도서관간의 공통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협력의 도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2. 필요성 및 현황

역사상 한 도서관이 완전한 자급자족 체제를 갖은 사례는 아직 없다. 그렇지만 오늘의 사서들은 여전히 모든 이용자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킬 이른바 완전한 도서관자원을 이루어 보려는 꿈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 꿈을 현실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길은 하나 밖에 없다. 그것은 물론 각 도서관이 독자적으로 완전한 장서를 구성하는 방법이 아니고 여러 도서관이 자발적으로 그 장서들을 묶어서 하나의 확대된 통합장서를 만들고 이 통합장서에 각 도서관을 연결시킴으로 이용자들이 각 도서관의 제한된 장서에서 확대된 장서로 접근하게하는 일, 즉 도서관 협동체제를 편성하는 일이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각 도서관이 그 독자성의 일부를 포기하고 도서관협동체제라는 전체에 종속되어 통합장서에 자체의 장서를 투입하고 그것에서 자체의 이용자들이 요구하는 자원을 인출하는 점점 구실을 주기능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 도서관계에서도 이러한 협동체제의 개념이 이해되고 그 필요성이 인식되어 지역별로 또는 분야별로 초보적이기는 하나 협동체제가 구성 운영되고 있다. 서울 흥릉과 대덕 과학단지내 도서관간 협동체제, 서울 신촌지역 3개도학도서관간 협동체제, 전국 의학도서관간 협동체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지역별 또는 분야별 도서관협동체제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전국 범위의 협동체제에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전국적 협동체제도 궁극적으로 세계도서관 협동체제에 연계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후자는 전자의 존재를 전제로 형성되는 것이므로 당면과제는 전국도서관협동체제를 편성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학술 및 연구자료등이 비교적 충실하게 소장된 도서관이 상당수 있다. 이들 속에 소장되어 있는 자원은 확실히 우리 국력의 주요 원천이다. 문제는 그러한 자원들이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분산된 상태로의 도서관 자원이 아무리 충실하더라도 그것이 전국적으로 통합되고 조정되지 않는다면 그 봉사 효과라는 것이 단지 소속된 기관 안이나 주변지역 안으로 제한

된다. 전국의 주요 도서관(또는 모든 도서관)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고 각 도서관 안에 효율적 커뮤니케이션이나 자료 전송수단이 마련되고, 각 도서관에 상호자료 대출의 의무와 권리가 법적으로 주어지고, 그 활동이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되어야 즉 국내의 모든 도서관들이 협동체제 속에 들어 와야 비로소 전국 도처에서 일하는 연구자, 기술자, 기타 이용자들이 그들의 활동지역에 상관없이 국내의 모든 도서관 자원을 필요에 따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도서관협동체제는 도서관자원에 대한 일종의 민주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도서관협동체제를 구성하는 두가지 주요 이유는 봉사 내용의 개선과 경비 절감이다. 도서관협동체제는 이용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 도서관자원에 접근하는데 방해가 되어 왔던 종래의 제도적, 지역적 장애가 제거됨을 의미한다. 그것은 또 오랫동안 개탄의 대상이 되어 온 불필요한 도서관간 중복자료의 수집이 지양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효과는 자료구입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 협동체제의 개념은 통합된 전체 도서관자원에 대한 이용자들의 공평하고 동등한 접근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그것은 모든 도서관의 봉사 내용을 확대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협동체제 내 도서관들의 자원을 무위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봉사상의 잠재적 이점 때문에 사서들은 협동체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게되는 것이다. 다른 한 주요 이유는 경비절감의 효과이다. 오늘날 각 도서관은 당면하고 있는 경제적 압박 때문에 최소한 현재의 봉사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도서관간의 자원 공유 방식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출판량은 계속 증가하고 책 값 또한 해마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사서들은 필요한 자료를 무제한 사들일 수는 없다. 결국 기본적 장서를 위한 자료는 각 도서관이 구입하지 않을 수 없겠으나 특수한 장서를 위한 자료는 다른 자원도서관에서 쉽게 빌릴 수 있는 협동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다.

자료구입비가 충분하지 않아 국가적으로 필요한 모든 자료를 구입할 수 없다면 협동체제를 통한 상호협력을 생각하여 보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한 협동체제는 장서가 빈약하나 그러한 장서라도 최대한 이용할 필요가 있는 나라에서 더욱 긴요하다. 협동체제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각 도서관에 개별적으로 재정지원만을 늘린다면 다만 도서관 간에 불필요한 자원의 중복만 늘릴 뿐 국가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II. 협동이 가능한 분야

앞에서 편의상 도서관간 자료 유통면의 협동을 중심으로하여 협동체제의 성격, 이점, 필요성 및 현황을 살펴 보았다. 협동은 수서, 편목, 보존, 봉사 및 교육분야에서도 가능하다. 사실상 도서관활동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협동은 가능한 것이다. 각 분야의 협동문제에 대한 심층 분석과 논의는 다른 주제발표자들이 행한 것이므로 여기서는 다만 전체를 개관하는 뜻에서 그 하나 하나를 간단히 살펴 보려고 한다.

1. 수 서

수서분야에서의 도서관간 협동은 자료이용분야에서의 협동에서 나온 불만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 나라에서 소수 자원도서관을 제외하면 한 도서관에 없는 자료는 다른 도서관에서도 대개 없으므로 자연 그 소수 자원도서관에 상호대출을위한 거의 모든 청구가 집중되고 결과적으로 이 도서관들이 주기만하고 얻을 것이 별로 없는 협동체제에 참가하기를 꺼리게 되어 조만간 협동체제가 무의미하게 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은 모든 도서관이 주제별로 수서를 특성화하여 다른 도서관에서 받기도하지만 줄 것도 마련하게하는 것이다. 장서 특성화의 실체는 듀이 분류표의 모든 주제를 협동체제내 도서관들에게 할당하고 그렇게 할당된 주제분야의 도서 수집에 일정액 이상의 구입비 지출을 의무화시키는 것이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임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어느 도서관이라도 협동 체제의 협약사항 때문에 자체 이용집단의 요구와 별로 관계가 없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해마다 적지않은 자료 구입비를 지출하는 일은 결코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지역별로 수서분야의 협동이 처음으로 시도된 것은 1948년 영국 런던 시내 28개 공공 도서관들이 듀이분류번호를 55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그 중에서 하나 또는 둘 이상씩 분담하고 분담된 각 분야의 자료 수집에 연간 2백 파운드 이상 추가지출하기로 합의한 일이었다. 이 런던 모형은 이론적으로 참신하고 완벽하였으므로 곧 영국내 다른 지역들에서 검토되고 실제로 몇개의 유사한 협동사업이 출현하였다. 1949년에는 동남지역에서, 1953년에는 웨일즈지역에서, 1954년에는 서북지역에서, 끝으로 1959년에는 서남지역에서 주제분야 분담방식의 수서를 위한 협동사업이 시작되었다. 이 주제분야 분담방식의 협동수서에 대한 발상은 도서관계에 널리 알려지고, 그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은 사실이나 실제로는 주제분야 할당에 우리가 개재되게 마련이어서 결과적으로 도서관들이 적극 협조하지 않음으로

써 영국내에서도 그 이상으로 확대되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았다. 지역별 협동수서는 크게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국고 지원으로 시작된 전국 규모의 협동수서는 사정이 다르다. 즉 잘 알려진 「파밍턴·플랜」은 미국의 60개 전문도서관에서 주제분야를 할당하고 미국내 연구자들에게 이용 가치가 있다고 믿어지는 해당 분야의 모든 외국출판문헌을 한권 이상 구입하게하고 구입비를 국가에서 변상하는 방법으로 1948년에서 1972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 「파밍턴플랜」과는 별도로 1962년부터 미국국회도서관을 중심으로한 미국내 30개 전문도서관이 외국에 대한 잉여농산물 판매 대금을 재원으로, 할당된 하나 또는 몇개 국가의 출판문헌을 수집하고 있다. 독일과 스칸디나비아 4국에서도 유사한 전국 규모의 협동수서를 볼 수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각각 독특한 배경하에서 수서분야의 협동이 출현하였다. 즉 독일에서는 전후 거의 모든 도서관장서를 잃었으나 도서 구입비는 제한되어 있어 중복 수집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수집된 자료를 최대한 나누어 읽어야하는 상황에서 25개 주요 도서관이 주제분야 분담식 협동수서를 행하였다. 스칸디나비아 4국 즉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및 스웨덴은 모두 작은 나라로서 각각 독자적으로 전세계 문헌을 망라적으로 수집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다행히 이 네 나라가 문헌적으로, 사회적으로 또는 언어적으로 가까우므로 주제분야를 분담하여 하나의 포괄적인 정서를 이 지역에 구성하자는 목표로 이른바 「스칸디아·플랜」을 계획 운용하고 있다.

2. 편 목

같은 책이 여러 도서관에서 여러번, 때로는 수천번 편목된다는 것이 국가적으로 비능률적이라는 사실이 지적된지는 오래다. 사실 어느 책이든 한번만 정확하

게 편목하여 그 목록사항을 모든 도서관에 알려서 해당도서가 입수되었을때 자체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용하게 한다면 거기서 절약되는 인적 물적 자원은 대단할것이다. 이것이 편목분야의 협동이 나타난 근거이다. 그렇게 한번 편목하는 곳은 국가에서 지정한 도서관(예컨대 국립도서관)일 수 있고 어떤 협동체제내에서 제일 먼저 그 도서를 수집한 도서관일 수도 있다. 문제는 어떤 경로를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알리느냐하는 것이다. 인쇄카드, 인쇄카드 제작시에 부산되는 교정지, 전국 종합목록책자 등과 전달 수단으로는 우편서비스가 상당기간 사용되었으나 시간적으로나 경비상으로 만족스러운 것이 못 되었다. 편목분야의 효율적 협동은 온라

인 전산시스템의 출현후부터 그 본격적인 장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온라인 전산시스템은 협동편목분야에 이상적 도구를 제공하였으며 이 분야의 여러가지 문제를 일시에 해결하여 주었다. 즉 온라인 전산시스템으로 여러 곳에서 제작되는 기계가독형목록파일들을 모아 한 곳에 축적하고 거기에 다시 협동체제내 도서관들에서 작성되는 자료기록을 해당 도서관에 설치된 온라인 터미날을 통하여 즉시 추가하고 그렇게 구성된 거대한 목록파일로부터 각 도서관은 역시 자체내 온라인 터미날을 통하여 필요한 목록정보를 거리에 관계없이 즉시 검색하여 이용할 수 있게된 것이다.

협동편목에 있어서 이러한 온라인 전산시스템의 잠재력을 제일 먼저 파악하고 구현시킨 것은 미국의 「OCLC」였다. 「OCLC」의 성공적인 온라인 시스템 이용에 자신을 얻어 미국내에서는 곧 「RLIN」, 「WLN」등 유사한 대규모의 편목을 위한 협동체제가 출현하였고 미국 밖에서도 캐나다의 「UTLAS」, 이스라엘의 「MARCIS」 등이 출현하여 모두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다. 가장 야심적인 영국의 전국 편목협동체제인 「MERLIN」은 아직 개발단계에 있다.

3. 보 존

도서관자료 보존 분야에서의 협동은 자료이용 실태에 관한 여러 조사의 공통적 결론이, 대규모 전문도서관 장서의 대부분이 이용빈도가 매우 낮다는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이 점은 늘어나는 장서로 말미암은 공간 확보의 어려움과 더불어 생각되어 이용빈도가 낮은 자료를 뽑아, 땅 값이 싼 교외에 보존도서관을 짓고 그곳에 옮길 것을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도서관을 단독으로 마련할 것이 아니라 같은 사정으로 고민하는 이웃 도서관들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마련하고 운영할 것을 생각한데서 협동보존은 시작되었다. 협동보존은 도서관 공간문제가 가장 심각한 미국에서 주로 발달하였다. 최초의 협동보존은 1949년에 미국 중서부의 8개 주에 있는 10개 주요 전문도서관이 이용빈도가 낮은 그들의 자료를 소장할 「Mid-West Inter-Library Center」를 세운데서부터 시작되었다. 회원도서관들의 공동 서고라고 할 수 있는 이 센터는 본래 지역협동체제로 출발하였지만 그 후 1965년에 지역적 개념을 탈피하고 전국적 성격의 협동체제로 발전하면서 이름도 「The Center for Research Libraries」로 바꾸고 회원 도서관도 21개관으로 확대되었다. 이 센터는 여러 면에서 유능한 협동체제임을 실증하였다. 즉 이 센터는 회원 도서관들이 증대되는 공간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다른 도서관에서 옮겨 온 자료도 같이 이

용할 수 있게 됨으로 각 회원도서관의 실제적 지원이 확대되고, 따라서 각 회원 도서관이 센터에 소장된 자료를 중복 구입할 필요가 없어지고, 단독으로 그런 보존서고를 운영하는 경우보다 경비가 적게 들고, 또 센터가 어느 회원 도서관에도 없으나 어느 도서관에서도 구입하기를 꺼리는 자료를 구입함으로써 효율적 지역 장서를 구성할 수 있게된 것이다. 이 센터의 협동보존을 위한 모형에 따라 그 후 「Hampshire Inter-Library Center」, 「Medical Library Center」등 지역별 또는 활동분야별 보존서고들이 미국내에 나타났다. 이러한 보존서고들은 단순한 회용 자료의 보존기능에 그치지 않고 대개 공동사용을 위한 회용자료의 수집기능을 추가하여 그 유용성을 확대시키고 있다.

보존서고는 구조상 이용자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게되므로 그 자료는 자주 청구되지 않는 자료에 국한되고 신속한 배달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존서고의 개념은 또 각 도서관의 장서에 대한 소유 의식을 버리고 공동이용을 위하여 자기장서를 기꺼이 내 놓을 수 있는 사서들의 의식 변화를 요구한다.

4. 상호대출

한 도서관에 없는 책을 다른 도서관에서 대출하여줌으로 도서관 간에 자료를 공동 활용하는 일은 도서관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또 아마 가장 단순한 협동의 형태일 것이다. 그러한 상호대출을 위하여는 단지 책을 빌리려는 도서관, 기꺼이 빌려주려는 도서관, 그리고 적절한 전달수단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일견 단순하게 보이는 상호대출과정에도 문제는 있다. 첫째, 협동체제내 도서관들의 장서가 특성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호대출을 위한 거의 모든 청구가 한 두 자원 도서관에 집중된다. 이러한 현상은 호혜원칙에 입각하여 형성되는 협동체제 유지에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둘째, 상호대출과정에 소요되는 경비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많으며 이 경비를 청구 도서관으로부터 받아 내는 방법이 성립되어 있지 않다. 세째는 운반문제이다. 즉 대출된 자료가 흔히 도서관 밖의 운송 수단에 의하여 청구 도서관에 가고 다시 대출도서관으로 반송되므로 안전하게 돌아온다고 확신할 수 없고 또 포장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합하면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된다. 끝으로 상호 대출의 도구인 종합목록의 작성 및 유지, 도서관과 커뮤니케이션 수단의 마련 등도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가지 제도적, 기술적 개선책이 연구, 제시, 시험되었지만 그것은 문헌상에 상세하게 나와 있을 뿐 아니라 오늘 다른 주제 발표자에 의하여 깊이 분석될 것으로 여기서는 설명을 안하려고 한다.

5. 참고봉사

참고봉사의 기본적 기능은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도서관에 소장된 관련 정보자료를 연결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서 제기되는 한가지 문제는 이용자들 중에는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의 내용을 사서 앞에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참고봉사 담당 사서는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정보자료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그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용자가 요구하는 정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는 관련정보자료를 찾아야 한다. 여기서 다시 제기되는 일반적 문제는 각 도서관에 수집되어 있는 정보자료의 범위와 깊이가 대개 제한되어 있어 이용자들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도서관간 협동체제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 협동체제 내의 도서관 이용자들은 다른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보자료까지 합한 확대된 협동체제 참고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충실해진 정보자료와 이에 대한 법적 접근 권한이 자동적으로 참고봉사의 개선을 보장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협동체제내 다른 도서관에 소장된 정보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거리와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이 문제가 된다. 즉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자료를 찾는 사서가 그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어 앞에서 언급한 대화를 원만히 진행시킬 수 없기 때문에 관련성이 희박한 자료가 제공될 위험이 있고, 또 검색된 자료가 청구자에게 도착하는데 수일 또는 수주간이 걸리는 수 있다.

참고봉사의 협동에 있어서 이 두가지 문제 즉 거리로 인하여 불완전하게 진행되는 대화와 통상의 문서 운송수단에 의존하여 지체되는 응답시간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동안, 이용자와 정보시스템 사이에서 참고사서가 행하여 온 인간적 중개기능을 배제하고 이용자와 시스템 즉 전산기가 직접 대화하는 방식이 실현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능성의 검토가 활발하게 행하여졌다. 이러한 참고봉사의 전산시스템은 아직도 대부분 개발단계에 있으나 뉴욕주립대학 의학정보커뮤니케이션 협동체제와 같이 이미 이용자와 시스템 간의 직접대화방식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데 성공한 협동체제도 있다.

6. 교 육

도서관학 교육분야의 협동은 우리에게 아직 생소하다. 그렇지만 각 도서관이 그 제한된 자원을 협동체제를 통하여 전체에 합함으로써 기능을 개선하고 봉사를 향

상시될 수 있는 것처럼 도서관학 교육기관간에도 협동체제를 형성하여 운용하면 자체의 여러가지 제한을 다른 기관의 자원으로 극복할 수 있어 더 나은 교육의 성과를 거두고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도서관 봉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도서관학 교육분야의 유일한 공식적 협동 사례는 서울 신촌지역의 두 대학 도서관학과 대학원학생들의 교과목 선택에 주어진 자유이다. 즉 학생들은 규정에 따라 상대 대학에 개설되는 교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모형은 서울의 다른 대학들과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갑자기 많은 도서관 학과가 신설되어 여러대학에 교수요원이 부족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앞으로 국내 기술이 향상되고 기타 여건이 허용되면 협동 도서관학과 간에 시간표를 작성 배포하여 텔레비전 강의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지역적 전문인력의 부족은 상당히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비싼 기계나 연구자료의 분담 구입 및 공동사용은 교육분야 협동의 다른 중요한 가능성이다. 가령 실습용 전산기를 구입할 때 모든 학과가 동일한 형을 선택하지 않고 또 교육도서 및 외국학술잡지를 구독할 때 가능한 한 중복을 피하여 학과별로 특성화함으로써 협동체제의 교수와 학생들이 더 충실한 교육 및 연구자원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Ⅲ. 일반적 유형

도서관협동체제란 한마디로 어떤 공통적 이해를 중심으로 기존도서관들을 묶은 것이다. 어떤 도서관들 끼리 묶은 것이 그러한 협동체제의 목적을 이루는데 효율적인가? 지금까지의 지배적인 유형은 동일 지역내의 도서관들을 묶은 유형과 동일 주제 분야의 도서관들을 묶은 유형이며, 이 두 유형의 협동체제를 묶은 한 층 높은 수준의 전국 또는 국제 도서관협동체제는 궁극적이고 이상적인 협동체제이다.

1. 지역별 협동체제

지역별 협동체제는 처음 인근 도서관끼리 행한 호의적이고 비공식적인 자료 교환의 관습에서 시작되어 오늘의 공식적이고 효율적인 협동체제로 진화된 것이다. 기록상에 나타난 것을 보면 기원전 2세기의 알렉산드리아도서관에서 이미 그러한 호의적인 대출이 있었다. 공식적 협동체제는 20세기 초에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즉 영국의 전지역이 10개 도서관봉사지역으로 구획되고 각 지역의 도서관들이 해당지역의 중앙도서관과 거기에 비치된 지역도서관종합목록을 중심으로 연결된 것

이다. 그러한 지역별 협동운동의 동기는 같은 지역내 도서관 간의 활동조정을 통하여 각 도서관의 장서 구성에서 불필요한 중복을 배제하고 소장자료는 최대한이 용되게 하려는 의도였다.

이러한 지역별 도서관협동체제가 우리나라에서는 경북지역에서 대구 시립학생도서관을 중심으로 초보적 형태로 출현하였으나 그후 괄목할만한 발전이나 확대는 없었다.

미국에서는 지역별 협동체제가 그 나라 행정구조의 특징으로 해서 주단위로 형성발전되었고 예외적으로 몇개 지역에서 광역 지역단위 협동체제가 형성 운영되고 있다. 록키산맥지역의 도서관협동체제, 중서부지역 도서관 협동체제, 뉴잉글랜드 지역 도서관 협동체제 등이 후자의 예이다.

2. 주제분야별 협동체제

주제분야별 협동체제는 같은 주제분야의 전문도서관들이 소재 지역에 관계 없이 모인 협동체제이다. 이러한 협동체제는 통신 및 자료 운송 기술의 발달로, 종래 도서관간의 거래가 도서관협동의 장애요소가 되어 있던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된 때부터 활발하여졌다. 주제분야별 협동체제는 처음 한 나라의 테두리 안에서 형성되지만 후에 국경을 넘어서 국가간의 즉 국제적인 협동체제로 발전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그러한 예로서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는 미국의 의학도서관간 협동체제, 영국의 농학도서관간 협동체제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의학도서관간의 협동체제와 서울의 홍릉지역과 대덕지역의 과학기술도서관들을 중심으로한 협동체제가 형성되어 비교적 착실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다.

3. 전국 및 국제 협동체제

지역별 협동체제와 주제분야별 협동체제가 모두 유용하고 또 각각 장점이 있지만 그것으로 협동체제 본래의 궁극적 목표에 달하기는 어렵다. 결국 이러한 지역별 및 분야별 협동체제는 국가 단위로 또는 여러 국가를 단위로 통합되어야 한다. 이상적이며 최종적인 도서관협동체제는 물론 세계의 모든 도서관들이 하나로 통합된 세계 협동체제이다. 이용자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가 어느 지역 또는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어느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전혀 관심이 없다. 그들은 다만 필요한 정보를 얻으면 그만이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계의 모든 도서관 자원에 접근하는 길을 열어 주는 세계도서

관협동체제가 가장 바람직한 것이다.

1970년대에는 세계도서관협동체제 구성에 관련된 몇개의 중요한 회의가 열려 이 복잡하고 방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원칙들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원칙들의 중심 개념은 우선 세계 모든 나라의 국가 단위 도서관협동체제를 정비하고 그 국가별 협동체제의 대표도서관들을 통하여 각국의 도서관 자원을 세계 협동체제에 입력하고 또 그 도서관을 통하여 세계 협동체제의 통합자원을 출력시킨다는 것이다.

우리의 궁극목표는 당연히 세계도서관협동체제에 연계되어 우리 나라의 모든 도서관 이용자들이 전세계 지식자원에 접근하여 그들의 생활을 풍요하게하고 사회적 역할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그 세계 도서관협동체제의 형성은 우리의 전국도서관협동체제의 정비를 전제로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당면 과제는 다시 전국도서관협동체제의 전제가 되는 지역별 및 분야별 협동체제를 구성하여 발전시키는 것이다.

II. 결 론

도서관 간의 협동이 필요한지를 묻던 시대는 지났다. 어떤 분야에서 협동이 가능하여 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묻던 시대도 지났다. 그런 물음에 대한 대답은 모두 도서관인들에게 상식화된 것이다. 우리나라 도서관계에 협동운동을 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행동 뿐이다.

오늘날 도서 출판량은 해마다 늘어나고 도서의 값 또한 해마다 올라가고,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도 늘어나지만 하는데 도서관 예산은 같은 비율로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은 그 어느 때보다도 도서관의 협동을 요구하고 있다. 또 전산기의 보급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도서관 간 협동사업에 개재하고 있던 종래의 문제들 가운데 대부분이 극복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협동이 필요하다고 행동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를 어떤 구실로도 정당화하지 못할 것이다.

이론은 치우고 상식으로라도 다른 나라에서는 오래전서부터 잘 하고 있는 협동을 우리나라에서만 못할 이유는 없다.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도서관인들의 무능과 태만 외의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본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도서관협동체제의 형성에 관하여 최종적으로 충분히 토의하고 확신과 의욕을 가지고 각 도서관으로 돌아가 지역별 또는 분야별 협동체제의 구성을 위하여 움직여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고 행동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협동체제는 어느 한 사람의 지도력에 의하여 형성되지 못하며 모든 관계 당사자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만 가능한 것이다.